

교회 3대 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주간충현

•교회성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
나이다(시 18:1)"

•이주일의 말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
하라"(에베소서 6장 1절)

발행인 / 이종윤,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발행소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주간충현」 신문사 소석관 112호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Published by Choong Hyun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대표전화 552-8200, 팩시밀리 552-2925, 편집국 직통전화 554-1615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형제를 만나고 사랑하는 기회가 되며”

충현의 가족됨을 확인하는 계기되길

이종윤위임목사 충현올림픽 특별메시지 발표



사랑하는 충현 가족 여러분!
신록이 우거지는 초여름에 2만여 충현의 가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사는 형제임을 확인하고 민족 교회의 향도자요 어두운 세상의 햇불되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고자 모두 한자리에 모여 충현올림픽을 개최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일에 간여하여 수고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충현교회는 사도적 신앙을 고백하고 가르치며 세계를 교구로 삼고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미래 세계를 위해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기쁘게 일하는 천국 시민으로서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경주자인 충현의 인간상은 미래의 비전을 가진 자로서 창의적이고 자주적이며 실행이 일치하고 편협한 국수주의나 형식과 규례와 편견에 얽매인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인물이 아니고 주님을 본받아 희생과 봉사를 할 줄 아는 기독교 계성인으로서 세계를 품안에 안을 수 있는 도량과 우주적 공동체 의식을 가진 폭이 넓은 인물이며 정서적으로는 안정감을 갖고 진리에 대한 지식면

으로는 책임있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갱신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부단히 개발 활용할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충현은 이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배양키 위해 진리 앞에서 겸손하고 사실 앞에서 언제나 정직할 수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어야 하고 민족의 교회요 세계의 교회로서 하나님

께 영광과 기쁨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현 올림픽 모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를 만나고 사랑하는 기회가 되며 충현의 가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총이 충현의 모든 성도에게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담성경공부반

5월 12일은 휴강

매주 금요일 오전 6시15분 실시되어온 아담성경공부가 오는 12일은 공휴일 관계로 휴강케 된다.

참석자들의 착오없기를 바라고 있다.

대학부 춘계수양회

5월 18~19일, 갈릴리홀

교회학교 대학부(부장/이훈 장로)는 춘계수양회를 오는 18~19일 갈릴리홀에서 개최한다.

강사는 이종윤목사, 김영환목사

충현도서관 주일엔 휴관

4월정기당회에서 결정

그동안 주일에도 문을 열었던 충현도서관이 5월 첫주부터 휴관한다.

지난 5월 3일 4월 정기당회에서는 성수주일 일환책으로 도서관을 휴관기로 결정했으며, 도서관 이용자는 평일(월~토)에 사용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미 4월 첫주부터는 주일에는 설교테이프 보급 및 판매를 중지시킨바 있으며, 이번 조치로 우리교회는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경건한 예배의식과 신앙성숙을 위한 성경공부 등으로 주일성수 개념을 정착시켰다.

본교회 방문자에게 기념품 주기로

우리교회에 매월 500~600명의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다.

국내든 물론 외국에서도 많은 귀빈들이 방문해 오고 있는데, 이들에게 충현교회를 소개하고 안내할 책받침 형태의 기념품이 특별 제작되었다.

이 기념품에는 본교회 위임목사의 환영인사와, 교회당 시설 및 위치, 그리고 예배안내(교회학교 포함) 등이 일목요연하게 칼라로 편집되어 있다.

화제의 인물

충현올림픽 피켓걸 최인자양



5월 12일 충현올림픽 개회식 행사시 입장식 충현피켓걸로 최인자양(27세)(10교구 청량구역)으로 선정되었다.

최인자양은 본교회 최영남, 김정옥집사의 딸로서 해성음악학원 피아노 교사로 근무중이다. 현재 임마누엘 찬양대(2부)와 실로암 찬양대(수요예배)에서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재원이다.

로잔복음화대회 마닐라서

7월 11~20일 198개국서 4천명 참석

이종윤위임목사 둘째날 집회서 강의

세계교회 U.N 총회라고 할 수 있는 제2차로잔복음화 대회가 오는 7월 11~20일까지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개최된다.

전세계 198개국에서 4천명의 회원들이 참가하는 로잔대회의 첫날 개회설교는 빌리 그레함목사가 맡았으며, 둘째날 저녁집회에는 본교회 이종윤·위임목사가 「세계복음화를 위한 개교회의 역할」(충현교회를 중심으로)이란 제목으로 강의한다.

한편 이목사는 7월 24~28일 영국서 개최되는 세계신약학회에 참석할 예정이며, 8월 12~14일까지 와싱톤에서 개최되는 미주지역 내 120개 교회 연합 복음화대회에도 주강사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국제적인 행사에 위임목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의 기도가 요청된다.

유·초·소년부

수요예배 부활기로

그동안 중지되었던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수요예배가 당회의 승인을 얻어 부활기로 했다.

곧 준비되는대로 우선 유·초·소년부가 합동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충현훈련복 판매

1벌에 8천원씩

5월 12일 충현올림픽을 앞두고 조직위원회에서는 이날 착용할 충현훈련복을 성도들에게 판매하기로 했다.

동훈련복은 1벌에 8천원이며, 구입처는 교육위원회(소석관 103호)사무실이다.

지상강단

본문 / 신 6:4~9

5월은 가정의 달로서 첫주일은 교회가 꽃주일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격려하지만 어른된 사람들도서는 경고를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부모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신의 구원과 영혼의 유익을 구하듯이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의 고귀함을 깨닫고 스스로 주장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② 잘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

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③ 본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은 어린이의 마음의 거울에 깊이 새겨집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늘의 아버지를 보기 전에 육신의 아버지를 먼저 보며 말씀을 배우기 전에 부모의 행위를 배우게 됨을 기억하여 좋은 말과 바른 생활로 본을 보여 주세요. 날마다 가족과 함께 기도



도, 믿음도 아름답고 튼튼하게 키워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매를 들더라도 욕하거나 저주는 꿈에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축복하는 기도

약속의 자녀를 바로 키우는길

하나님 자녀로 성숙되기까지 은혜구하고 온전히 맡겨
잘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며 늘 기도해 주어야

인 부모로서 꽃같이 아름답고 새벽별처럼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바로 보살필 수 있을까요?

① 우리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임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가 내 혈통을 타고나고 내가 기른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로 착각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받아 일정기간 돌보며 양육하는 청지기적 책임을 맡았을 뿐입니다. 더우기 그리스도인 부모는 내 자녀가 불신 부모의 자녀와는 달리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언약의 자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악 중에 출생하는 것이고 구원이 자동으로 상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가정의 자녀는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약속과 상관이 없는 아이와 약속의 자녀는 그 신분과 특권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그 약속이 귀할 뿐 아니라 약속을 주시고 이루실

라고 하여 부모의 중요한 책임이 교육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이에게 최초의 스승은 부모이며 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경험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서부터 성경말씀을 들려주고 함께 읽으며 함께 공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에 원칙과 규범을 가지고 인격과 생활을 세워주고 훈련시켜야 할 것입니다. 때로 아버지 같이 엄격하면서도 어머니 같이 감싸주며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세상 학벌을 높여주는 것도 좋지만 영혼을 키우는 일이 가장 중요함을 기억하여 더 많은 시간과 대화와 지속적인 사랑을 아끼

하는 인자한 아버지는 아이로 하여금 사랑하시는 하늘의 아버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며 경건하고 포근한 어머니의 품을 경험한 아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부드러운 손길을 깨달을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해도 역시 불완전한 인간 뿐일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영적 아버지를 닮기 위하여 부모 자신이 먼저 노력하는 가운데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④ 늘 기도해 주십시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돌보는 것은 우리 부모의 할 일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자녀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몸도, 지혜

만 해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자녀로서는 배후의 기도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으며 그 이상 위대한 자산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쉽게 부모가 되었지만 자녀를 키울수록 그 책임을 감당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그 약속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정성을 다하여 돌봄으로 우리 가정에 서부터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는 축복과 소망이 충현의 모든 가정에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김익경(목사·제11교구·청년1부 지도)

장로칼럼

대형교회의 사명



차신득
(장로·영아부 부장)

이 정도의 물음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뭐하려고 교회는 그렇게 크게 짓습니까?" "그 교회 공사비는 모두 얼마나 되지요?" 그것 가지고 작은 교회를 많이 짓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이쯤되면 이미 충현교회를 보는 시각이 부정적이어서 친절할 답변이나 설명에 한계를 느끼게 된다.

며칠전 개척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어느 젊은 목사님의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여운을 남겨 주고 있다.

방향을 제시해 주려는 향도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충현교회의 장로이기에 이 말을 드리고 싶었다는 그 목사님의 말씀에 고마움이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적지 않은 충격과 책임감을 더욱 느끼게 되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위치와 책임에 대하여는 우리 스스로가 이미 느끼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밖에서는 아직도 회의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이 있음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모든 프로그램이 충현교회 자체에 머물지 않기를

평소에 충현교회에 다닌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가지 말들을 들곤 하는 것이 나.하나만이 겪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짓다가 중단된 그 교회말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게 지었다는 돌로 지은 교회 말인가요?"

"아, 야당의 모 총재가 다닌다는 교회 말이지요?"

"충현교회는 요즘의 양적인 부흥에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충현교회를 비롯한 서울의 대형교회들과는 달리 서울의 많은 작은 교회들은 현상유지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큰 교회는 자기 교회만의 부흥이나 행사에 만족하지 말고 한국 전체의 복음화에 유익이 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기본적인 자세전환을 한국의 모든 교회들에게 올바른

홍해작전, 여러고작전에 이어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충현올림픽, 시온성대행진 등의 모든 프로그램이 충현교회 자체의 행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님을 충현교회 성도들이면 누구나 깊이 인식하고 충현교회의 사명과 역할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민족과 교회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위임목사 동정

☆ 이종윤 위임목사는 지난 5월 4일 오후 6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본교회 사찰, 식당, 미화부 직원들을 만나홀로 초대하여 저녁을 같이하며, 그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경배들에게는 선물증정을 했다.

이들은 작년부터 사랑의 실천운동 일환으로 뜻을 같이한 회원들의 회비를 1년 동안 모아 이날 전달식을 갖게 된 것이다.



▲ 사랑의 집을 찾아 성금을 전달하는 김성녀·유호순 집사.

주간성경공부강의장소
소석관 301호

교육위원회 산하 성경연구원이 주관하는 주간 성경공부 및 교사양성부 교육장소는 소석관 301호이다.

지난호 나간 베다니홀은 틀렸으므로 바로 잡습니다.

이용자의 착오없기를 바라고 있다.

교회학교 교사 추가 임명

교육위원회는 당회의 승인을 얻어 교사를 추가 임명했다.

△유치부=정두연, △초등부=오세일, 박현순, 이연실, 김영민, △새신자=김문섭, 홍경숙

찬양대원 추가임명

예배위원회는 각부 찬양대원을 당회의 승인을 얻어 추가 임명했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가브리엘=이정엽, 조정원, 정길자, 이영준, 박용삼, 이주현, 한수미, △임마누엘=김요섭, 김현정, 금현숙, 오정성, 박동희, 이경식, 정철영, 양찬호, △할렐루야=장선복, 김영소, 전정구, 김영복, 신혜자, 박영옥, 박주희, 이인숙, 홍정화, 박태희, 박정현, 김정림, 임봉임, 전옥순, 임수연, 김정인, 정진화, 박명신, 문인숙, 이장연, 김혜경, 정준진, 김희선, 최동훈, 김산일, 이종성,

배은희, 홍성희, 유재원, 유정은, 이복순, 한희경, 민성혜, 김진숙, 김은주, 권장환, 김영준, 이문환, 양위덕, 황낙효, 김성기

사랑의 집 방문위로
김성녀·유호순집사 등

본교회 김성녀집사(사랑부 교사)와 유호순 집사 등이 지난 4월 30일 내발산동에 위치한 사랑의 집(정신박약아 수용시설)을 방문하여 1백 63만원을 전달했다.

5월 12일 『충현올림픽』개막

입장식 · 가장행렬 · 응원전도 볼만

우승의 영예는 어느팀일까?

전교인은 충현훈련복 착용토록

드디어 충현올림픽의 광과래가 5월 12일 플레이 불이 선언된다. 대회의 규모로나 준비, 기획 조직 연습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알찬 대회를 이루려고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이제 충현올림픽의 열기가 한창이다.

「풋대를 향하여」 「영광과 승리와 환희의 큰 잔치」의 슬러진이 크게 부각된 교회의 대형 현수막이 말해주듯이 2만 충현 성도가 다 함께 모이는 날이요, 은혜받은 성도들의 대합창인 할렐루야가 서울 올림픽의 광장이었던 역사적인 잠실벌에서 다시금 「메아리」침으로서 충현의 선교의지를 재확인하는 귀한 기회가 될 것이다.

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오진국 장로)에서는 14개의 부서와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연합교구로 팀을 4개팀으로 조직하였으며 2주 전부터는 평일에도 계속 집무하는

열의 속에 각부서 진행상황을 점검도 끝내고 마지막 선수단장회의를 지난 6일을 끝으로 최종작업을 확인한바 있다.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기대넘친 입장식과 가장행렬(각 교구별)이 불만하며 각 팀별 응원전 역시 기대되며 8개의 경기를 위한 코칭스텝(감독, 코치)은 선수명단을 확정하고 연습에 돌입했으며 벌써부터 대회 성적의 예상을 점쳐보기도 하는 열기도 대단하다.

어느 팀이 영예의 우승이냐? 문제가 아니라 온 성도가 다함께 모이는 이 뜻깊은 한 날의 즐거움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두에게 사랑을 베풀므로 주안에서 한 형제됨을 기뻐하는 사랑의 현장이 될 것이다.

경기진행시간표

순	시 간	분	종 목	장 소	대 상
1	09:00-09:30	30	팀, 교구별 가장행렬준비	출발지점	전원
2	09:30-10:00	30	가장행렬 입장	운동장	459명
3	10:00-10:10	10	충현햇불 입장 점화		2명
4	10:10-10:25	15	개회예배	운동장 스탠드	본 부
5	10:25-10:30	5	개회선언, 선수선서	본부석	각팀 응원단장 (선서: 모세팀)
6	10:35-10:50	15	찬양으로 마음 문을...	본부 스탠드	야드나엘 성일동팀
7	10:50-11:00	10	팀별 응원	스탠드	사회자
8	11:00-11:20	20	구원열차	운동장	각팀 212명
9	11:20-11:40	20	슈퍼축구 A조	운동장	각팀 15명
10	11:40-12:00	20	충현교회 건축	운동장	각팀 20명
11	12:00-13:00	60	점 심	스탠드	
12	13:00-13:10	10	준비 운동	스탠드	야드나엘성일동팀
13	13:10-13:30	20	슈퍼축구 B조	운동장	각팀 15명
14	13:30-13:50	20	400m 릴레이	운동장	각팀 12명
15	13:50-14:10	20	거북이 릴레이	운동장	각팀 16명
16	14:10-14:40	30	줄다리기(A,B조)	운동장	각팀 50명
17	14:40-15:00	20	성령의 열매 따기	운동장	각팀 100명
18	15:00-15:20	20	중간성적 발표	본부	
19	15:20-15:30	10	2인 3각	운동장	각팀 8명
20	15:30-16:00	30	아마겔돈 전쟁	운동장	각팀 100명
21	16:00-16:30	30	믿음, 소망, 사랑	운동장	각팀 500명
22	16:30-17:00	30	폐회예배	운동장	다같이

입장 순서

순위	명 칭	내용	입장인	인원	준 비 물
1	충현올림픽	피켓		1	피켓, 상갑(백), 한복
2	충현올림픽	대형기	부대회장	8	기, 백장갑, 모자, 충현유니폼
3	입장순서				
1)	엘리아팀	피켓	(여)	1	피켓, 백장갑, 한복
기 수	기	(남)		3	기, 현대, 백장갑, 충현복
임 원 단	(남) 단장, 부단장			3	백장갑, 충현복
총감독					
(1)	1교구	피켓	(여)	1	피켓, 백장갑, 한복
가장행렬	(남, 여)			30	백장갑, (자유) 복장자유
(2)	5교구			31	
(3)	8교구			31	
(4)	11교구			31	
2)	모세팀	피켓	(여)	1	장 동
기 수	기	(남)		3	
임원단	(남) 단장, 부단장			3	
총감독					
(1)	1교구			31	
(2)	7교구			31	
(3)	13교구			31	
3)	바울팀	피켓	(여)	1	피켓, 백장갑, 한복
기 수	기	(남)		2	기, 현대, 백장갑, 충현복
임원단	(남) 단장, 부단장			3	백장갑, 충현복
총감독					
(1)	2교구			31	
(2)	9교구			31	
(3)	14교구			31	

4)	배드민턴	피켓	(여)	1	상 동
기 수	기	(남)		3	
임 원 단	(남) 단장, 부단장			3	
총감독					
(1)	3교구			31	
(2)	6교구			31	
(3)	10교구			31	
(4)	12교구			31	
4	충현햇불입장	햇불	(남) 청년1부 면려회 회장 (여) 대학부 부회장 명예대회장 대회장	1 1	햇불, 백장갑, 충현유니폼 운동화(백) 1) 햇불들과 할렐루야 합성 2) 각팀에서 고무풍선 200개 산포 3) 주세 찬송테이프에 마치시 합창 1절만
본부석	인계				
5	개회예배		1) 사회: 올림픽조직 위원회(오직국장로) 2) 찬송: 390장 3) 기도: 당회서기(윤명식장로) 4) 설교: 김창인목사(명예대회장) 5) 주기도: 다같이		
6	개회선언		대회장		
7	선수선서		각팀 응원단장 (대표: 모세팀)	4	팀장갑, 충현유니폼 선서문
8	심판선서		심판 2명 황대 대표: 심판 위원장	23	심판모자, 백장갑, 지팡이유니폼 선서문
9	폐회식		1) 성적발표: 조직위원장 2) 시상 3) 폐회예배 출발내 대청소		

사전에 알아두세요

- 9시까지 입장 완료토록
- ◎ ...대회장인 정신여고에 오전 9시까지는 입장을 완료해야만 대회가 원만하게 진행이 됨으로 모든 성도들은 시간을 지켜주도록 대회조직위원회에서는 당부하고 있다.
- 도시락은 각자 지참
- ◎ ...각 가정에서는 각기 도시락을 미리 준비마련하셔서 점심시간에 서로 먹을 때며 나누는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바라고 될 수 있는한 버너 등 취사용 기구는 사용을 절대 금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 간이 매점 운영
- ◎ ...미처 준비하지 못한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대회 본부에서는 간이 매점을 2개처에 설치 운영키로 했다.
- 개점시간은 경기시간을 참작하여 오전 12시부터 3시까지에 제한을 두었다.

의무실도 준비

- ◎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및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의무실도 준비하여 몇분의 전문의, 한의사, 약사, 간호사도 동원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했으며 인근 강남병원의 1개 병원의 엠브런스도 대기토록 세심한 배려까지 하고 있다.
- 주차장 등 안내요원 배치
- ◎ ...차량을 안내하며 주차장관리를 위해 70여 명의 담당요원들이 질서정리를 비롯한 대회장 주변의 경비까지 구석구석 살피기로 했다고.

폐회 후 청소도 깨끗이

- ◎ ...장소를 제공해 준 정신여고에 감사드리며 폐회 후 대회장 주변을 깨끗이함으로 성도들의 질서의를 보여주도록 협조를 요청.

팀별 진행위원 교역자 현황

팀명	엘리야	모세	바울	베드로
팀색	노란색	빨간색	하늘색	녹색
단장	박철훈	남선우	마성락	김기정
부단장	이종국	강모용	박영식	이상현
총감독	김익경	이창호	김학진	송환창
응원단장	전홍렬·박철구	김춘권·최순애	황형철 정영덕	이병두 서영남
단원	이득해 이명숙 최정옥 이대길	김윤희 강신순 박현순 오영선	김명숙 장혜영 김희숙 강동성	배은희 이명숙 오성애 박창서
전령	이계인·김영은	한일현·신부근	김구형·고승근	함철주·서미라
선수대기반	고병국 김형선 김대호 장봉순 진학래 김장명 이계홍	김진국 김용호 이보섭 김정필 이만기 신중명	김영록 정달영 정경자 염숙현 김영구 태명자 김영숙	김상규 양종섭 이정우 이대근 김영수 박종태 김기철
피켓	박은경		김순희	신명순
기수	윤상언 김명달 양준호		최경민 임영일 안중영	안희정 김중선 양정섭
교구	4 5 8 11	1 7 13	2 9 14	3 6 10 12
입장피켓	최숙경 주미현 박은주 박선화		김애리 한성옥 김혜숙 김승옥	이명희 이학자 김춘숙
교역자	김준태 김장근 김동열 김익경 김해규 이원길 윤용규 김학진 이세열 김광석 송태근 김영구 이양우 김성운		김태근 김명신 김정순 김경자 최순복	
교구장	이용선 이종국 박철훈 김은호 오정현 강모용 이창호 김원선 송기홍 마성락 오진국 강순용 강은원 김재복		김달현 김장명 이계홍 정래명 정창원 신부근 한일현 김구형 임선령 신영선 김상규 김기철 함철주 김병석	
전령	오순자 이윤애 김태규 윤병순 정영숙 조영혜 신기숙 고승근 조정식 한영덕 안희정 박종태 박천래 서급자			

2학기 목회자세미나 개강

초교파적으로 1천 4백명 참석

본교회와 한국교회 성장연구원(원장/이종윤목사)이 마련한 교회갱신과 성장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 제2학기 개강예배 및 강의가 지난 5월 1일(월) 오후2시, 본당에서 있었다.



교회기관소개⑥

교회학교 영아부

“세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우리 속담은 어렸을 때의 자녀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성경에서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고 말씀하신다. 그러기에 영아부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가를 강조하지 않아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스스로 예배와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하여 신앙과 인격이 독립적으로 성장하게 도와준다는 교육방침 아래 만2세 이상 유치부 아기 전까지의 아기들을 대상으로 영아부(부장/차신득 장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예배, 찬송과 율동, 성경공부, 각종 만들기와 놀이 등 매주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주기도문 외우기, 십계명 외우기 등 특별행사로 마련하고 있고 우리교회에서는 가장 어린 영아부 찬양대가 예배시간에 찬양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3부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예배의 2부, 3부, 4부 시간과 같은 시간에 운영되고 있어 아기들이 영아부를 마친후 부모님과 함께 귀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본당 지하 아멘홀의 넓은 공간이 영아부 아기들의 배움터인데 김연이 전도사의 지도

영아부 아기들의 신앙적인 인격형성 위해 만2세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

아래 40여 명의 교사들이 영아부 아기들의 신앙적인 인격형성을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모든 정성을 쏟고 있다.

아직도 영아부를 찾지 못한 아기들의 영아부 입학을 뜨겁게 환영해요.



충현프리즘

☆ 올림픽 게임인원 확정

5월 12일에 있을 「충현올림픽」 각종 경기 및 게임에 대한 해설이 지난호(제9호/4월 29일자)에 게재되나 있는데, 잘못나간 ①번 구원원칙의 인원수는 남녀 비율 50%로 유년부 20명, 초등부 20명, 소년부 20명, 중등부 30명, 고등부 30명, 대학부 32명, 직장전도 교육부 20명, 청년 20명, 장년 20명으로 바로 잡으며, ④번 줄다리기는 장년이 20

☆ 목회자 세미나 대성황

지난 1학기에 이어 제2학기 목회자 세미나 1학기보다 더

교회의 새명소 충현 분수대 세례부교사 사무실 소석관 104호로 이전

많은 교역자들이 몰려, 그동안 강의실로 사용했던 갈매리홀이 너무 비좁아 본당으로 장소를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 참석자 모두가 앞자리 차지하려고 신경을 곤두세웠다는 후문도

☆ 세례부 교사 사무실 소석관 104호로 이전

그동안 112호에 있었던 세례부(부장/이창호 장로)교사사무실이

☆ 명물 충현 분수대

교회 본당 오른쪽에 충현 분수대가 마련되어 지난 5월 물을

☆ 현수자 명단

지난 주간에도 교회당 주변을 푸르게 하기 위한 현수현금에 여러분이 참여했다. 그 이름은 다음과 같다. 황영숙권사, 이용점권사, 김혜정집사.

독자의 광장

디모데 7지회

강봉수

(안수집사·7지회 디모데회장)

할렐루야!

충현의 모든 성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간충현」의 지면을 통하여 저희 디모데 7지회를 소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편집국장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과 착하고 충성된 42명의 주님의 종들을 보내 주셔서 ①디모데 협의회 사업에 동참케 하시고(년 360,000원), ②상무 반석교회를 지원교회로 허락하시며(년 750,000원), ③잠실 성산교회를 위탁교회로 세워주심과(년 850,000원), ④소년, 소녀가장인 문혜영 가정(년 360,000원)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대내, 대외, 구제 사업을 감당키 위하여 저희들의 적은 정성과 기도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신 사업의 내실과 더 많은 일들을 감당키 위하여 7교구의 모든 남성도들의 관심과 격려와 체책을 주실 때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리라 믿습니다.

88년 9월 개편총회 이후 저희 7지회는 의욕에 찬 회무 진행과 전도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해 오면서 지난 3월 월례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정함바 있습니다. 그날 회의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한 회원이 발언권을 얻어 「4월 9일 고등부 주관 미래세계의 지도자 초청대회에 교회에서 예산받침을 받았으나, 좀더 알뜰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고등부 교사들의 형편으로는 예산이 부족한 형편이니 귀한 사업에 기도와 물질로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하자 동의, 제청이 있었고, 전도부에 산 5만원과 당일 즉석에서 현금한 7만원 등 12만원을 전달하여 전도회의 사명을 감당한 것 같아 가슴이 뻐뻐했습니다.

지금껏 작은 물질이었지만 아벨의 제사와 같이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서 열납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다시한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신 7지회 디모데 회원 여러분들에게 담대한 믿음, 가정의 평강, 사업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